

2025 대한민국 헌혈공모전(수기)

제목 우리 집에는 헌혈 용사가 산다

우리 집에는 자칭, 타칭 “헌혈 용사”가 산다.

모두가 느슨한 다섯 식구의 토요일 아침은 온 가족이 누워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다. 어린 세 딸은 와글와글 씩 없이 재잘거리며 주말에만 여유로운 아빠의 온몸을 타면서 깔깔거리다. 지난 한 주도 바쁜 아빠가 그림고 고팠을 아이들에게 아빠가 늦잠 자는 토요일 오전은 최고의 만찬이다. 그런 아빠가 가끔 금방 돌아온다며 오늘처럼 10시 전에 사라진다. 동생들이 잠시 입을 삐죽거리자, 첫째가 헌혈 용사인 아빠는, 금장까지 탄 위대한 영웅이라 반드시 아픈 사람을 위해 나가야 한다고 또 설명했다. 몇 번이고 용사의 용맹한 이야기를 들었던 꼬맹이들은 곧 아쉬움을 접고 엄마인 내게 쫓르르 쫓아왔다. 누구도 헌혈 용사인 아빠의 주말 출근길을 막을 순 없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다. 의미 있는 일이라면 마음만 주기보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았는데,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아이를 후원하는 일, 정기적으로 보육원 봉사를 하는 일, 아픈 유기 동물들을 돌보는 일, 연말마다 사랑의 후원 상자에 생필품을 챙겨 주민센터에 보내는 일, 그리고 헌혈하는 일이었다. 여느 연인처럼 작고 큰 다툼들이 있는 평범한 연애 시절이었지만, 때때로 화가 날 때 ‘저런 사람이 선택한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지.’ 하고 내심 믿음이 가게 되는 선한 일들이기도 했다. 그중에 몇 가지는 함께 하면서 많은 의미와 보람도 느꼈는데, 하고 싶어도 끝까지 안 되던 난제가 바로 헌혈이었다.

당시는 내 체중도 기준에서 간당간당한 데, 헤모글로빈 수치상 헌혈이 안 된다고 했다. 같이 헌혈해 보겠다며 나섰다가 서너 번 코앞에서 돌아서니, 내심 서운하면서도 내 몸이나 잘 챙겨야지 싶었다. 그러고 나니, 한창 바쁜 청년 시기, 직종 상 주말까지도 못 만나다 오랜만에 잠시 만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가끔(사실은 자주) 서운하고 답답했다. 처음엔 웃으며 받다가 나중에는 풀 뜯어 먹는 염소처럼 입술만 달싹여 알았노라 대답했던 이런 말들.

“이번 달은 회식이 많이 없어서 음주도 안 하고 좋다, 헌혈하러 갔다 올게.”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헌혈하러 갔다 올게.”

“A형이 부족하다는 데 빨리 좀 헌혈하러 갔다 올게.”

자기 한 명 헌혈 안 한다고 지구 어디에 구멍 뚫리는 대사건도 아닌 것 같은데, 텀블러 써서 환경오염 막는 정도면 의롭게 사는 것 아닌가, 이 바쁜 와중에 얼굴이나 겨우 보면서 융통성도 없이 저 혼자 사라지는 저 인간이랑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때라서 할 수 있을 고민 끝에 그래도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결혼 후 5개월, 지지고 볶으며 그게 신혼인지도 모르고 신혼에 폭 빠져있던 우리 부부에게 마치 그동안은 여행연습이었다는 듯, 큰 허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날은 여전히 진행 중이던 집들이 기간이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밥 한 끼는 대접하고 싶던 우리는 N번째 집들이를 준비 중이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다. 곧 지인들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급히 마무리하던 그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엄청난 복통이 밀려왔다. 생경한 통증과 식은땀, 숨통을 조이는 듯한 어지러움과 매스꺼움. 정신까지 몽롱해지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걱정시키지 않으려 꾸역꾸역 자리를 지켜내었는데, 손님들이 가고 다시 시작된 강력한 통증은 밤새 이어졌다. 목요일 밤이었다.

다음 날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 일단 출근은 하겠다는 나를, 남편이 제발 진료부터 보자며 병원으로 끌고 갔다. 통증이 아랫배 쪽에 있어서 펴지지도 않는 허리를 잡고 여러 과를 거쳐 검사를 한참 이어가던 중 산부인과 쪽에서 다급히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두 가지 검사가 더 이어졌던 것 같은데, 왜인지 가는 곳마다 대기 차트에 응급 1번으로 내 이름이 바로 올라갔다. 결과는 다량의 복강 내 출혈이었다. 자궁 옆에 있는 흑이 터지며 손상된 혈관에서 시작된 것 같다고 했다. 멍해져 있는 나를 뒤로하고, 산부인과 교수는 남편에게 다른 병원으로 갈 생각이면 이동을 포함해 2시간 이내에 수술할 수 있는지 빨리 확인하고, 현재도 다량 출혈 중이며 곧 저혈압성 쇼크와 쇼크사가 올 수 있는 응급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꿈만 같은 상황에 기묘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정신을 부여잡고 있던 남편이 빠르게 수술에 동의했고, 점점 아득해지는 의식을 깨우는 의료진들의 다급함과 비상이라는 외침, 달리는 발소리 속에 수술실로 올라갔다. 물속처럼 모든 것이 꿀렁됐다.

수술은 출혈점만 잡으면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하다고 했는데, 출혈량이 예상보다 더 많아 복강경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계획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안내된 것보다 두 배가 넘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의사가 나와 장기가 피에 잠긴 사진을 보여주며 시간 안에 병원에 와서 환자분이 사셨다고, 수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술 후 미칠 듯한 오한과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또렷이 들고나자, 그사이 어디 야산에서 내려온 듯 수척해진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찬찬히 둘러본 병실 침대 옆 협탁에는 여러 장의 헌혈증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다량의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혈액을 더 확보 중이고 헌혈증이 혹시 있으면 미리 챙기라고 병원에서 말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저 헌혈증들이 하나씩 늘 때마다 자랑스러워했던 신랑과 반대로 점점 냉소적으로 되어갔던 내가 떠올랐다. 몰랐다 그때는. 나 역시 누군가의 헌혈이 필요한 환자가 될 수도 있단 사실을. 내 지인이, 내 가족이, 혹은 나 자신이 예고도 없이 이렇게 병상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나눔으로 다시 살 수도 있단 사실을. 그때 헌혈증을 다 쓰지 않고도 난 무사히 회복하였고, 들고 있던 헌혈증은 바로 옆

침상에서 하얗게 지친 얼굴로 수혈받고 있던 앓던 여고생의 어머니에게 조용히 건네 드리고 나왔다. 병원의 그 차디찬 보호자 간이침대에서 일어나 눈시울을 붉히며 뜨겁게 손을 잡아주시던 그 손길과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 자식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셨다, 빨간 줄 이게 생명줄이라고.

그 뒤로 우리 집에는 어느 날 헌혈유공장 은장이 택배로 왔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금장이 도착했다. 누군가에게는 그 패가 주는 기쁨 자체만으로도 그다음 헌혈의 원동력이기도 할 테지만, 남편에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은빛, 금빛의 징검다리였다. 친한 친구가 급성백혈병에 걸려 급히 헌혈증을 찾을 때는 모아둔 헌혈증을 가져다주며 함께 끌어안고 울었고, 회사 동료의 어린 딸이 암으로 수술할 때도 헌혈증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다. 내가 겪었던 그 절박함의 끝에 누군가는 또 서 있다는 걸 이제는 나도, 지하철 정액권을 받기 위해 첫 헌혈을 시작했다던 남편도 알고 있다. 헌혈하러 가는 그 시간을 헌혈 용사로 부르며 아이들이 용사를 응원해 주는 이유이다. 자랑스럽게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빠는 또 헌혈하러 간다.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뼈도, 전체적인 건강도 약해져 최근에 다시 건강 관리를 힘쓰면서 안정적인 수치들이 되자 남편이 말했다. 헌혈이 정기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몸을 더 잘 만들어서, 헌혈을 더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우리 함께 헌혈하며 살자고. 헌혈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기본 혈액 수치들도 좋아야 하는데, 내 몸 상태까지 덕분에 알 수 있으니, 자신을 위해서도 일석사조란다. 이 사람은 정말 평생을 헌혈에 단단히 빠져있을 모양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조금 욕심이 난다. 아빠만 용사하라는 법도 없고, 엄마도 원더우먼은 못해도 헌혈우먼 정도는 아이들이 시켜주지 않을까?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조금 낮설긴 하지만 ‘부부 헌혈, 헌혈 우먼’을 기록하며, 온 가족이 ‘헌혈 가족’이 되는 그날도 가만히 그려본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국 나를 돕는 일이었다. 온기와 생명을 나누는 그 따뜻한 여정에 함께 하고 싶다.



(헌혈하러 간 헌혈 용사)



(응급 수술 후 입원 중)



(금빛, 은빛 생명의 징검다리들)